

요구되는, 욕망하는 여성상 -〈소현성록〉의 석부인

정선희*

〈차 례〉

1. 들어가며
2. 〈소현성록〉의 석부인의 특성
3. 요구되는, 욕망하는 여성상으로서의 석부인의 의의
4.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소현성록〉연작의 대표적인 여성 인물인 석부인 형상화의 특성과 그 의의에 대해 논하였다. 그녀는 당대인들이 요구하고 당대 여성들이 욕망하던 여성상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장편소설에서의 바람직한 여성인물, 이 작품 내에서의 다른 선한 여성인물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었다.

〈소현성록〉연작의 여성 인물 중 ‘석부인’에 주목하여 그녀가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찰하였는데, 그녀는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칭탄되는 인물이다.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이후에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살아가며 일생 전체를 보여주는 특별한 여성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선한 여성이나 바람직하다고 서술되는 여성보다는 악한 여성이나 문제적인 여성들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여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자질과 성품, 표현이나 대화의 방식까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녀의 특별한 점은 시(詩)를 잘 짓는 등 재주가 있고, 준엄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을 보여주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가족 윤리에 순응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기도 하는 아내로서의 면모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이상화되거나 도식화된 선한 여성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면을

* 홍익대학교 국문과 부교수

보여주며, 자신의 뜻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면에서 돋보인다. 당당하고 적확하게 말하고 쓰는 인물인 것이다.

여성의 말하기나 글쓰기의 문제는 개인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나아가 사회적 인 구조 및 사회화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라는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숨통이 막혀 있었기에, 막힌 숨통을 터워주는 말하기와 글쓰기가 비공식적 방법으로라도 필요했다.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통한 말하기와 글쓰기, 자기표현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부인도 자존감이 강한 여성이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속이 상할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였다. 오해를 받거나 곤란할 때에는 논리적인 발언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설명하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나누었다. 이러한 석부인의 마음 표현은 독백, 다른 인물과의 대화, 상소문, 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즉, 석부인은 당대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던 바람직한 여성상이면서, 여성향유층들의 내면적인 욕망과 표현 욕구를 반영하기도 한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소현성록>, 국문장편 고전소설, 바람직한 여성상, 가족 관계, 자기표현, 욕망

1. 들어가며

국문장편 고전소설에는 여성들이 대거 등장한다. 한 집안의 가족들 사이에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서사이기에 그러한데, 주인공급 여성 인물은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살아가며 일생 전체를 보여준다. 특히 선한 여성, 바람직하다고 서술되는 여성은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여성이나 문제적인 여성들¹⁾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다. 몇몇 연구

1)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에서 그녀들의 수난이나 부부갈등에 대해 논하기는 했지만²⁾,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자질, 성품이나 태도의 특징, 자녀나 며느리 교육 방법, 남편을 대하는 방식,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등에 대해 주목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칭탄되는 인물인 <소현성록>³⁾의 석부인의 특성과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녀의 특징이 다른 장편 고전소설의 바람직한 여성상과 겹치기도 하겠지만, 그녀에게 특별한 점은 시(詩)를 잘 짓는 등 재주가 있고, 준엄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을 보여주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가족 윤리에 순응하지만 당당하게

-
- 18, 2009;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2009;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 - <소현성록>의 화부인」, 『동방학』 20, 2011.
- 2)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28, 2009. 등 여성수난담 연구들;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0;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2011;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孝悌)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 유연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2015;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주/군주 형상화와 그 의미 - 부부관계 속 여성의 감정과 반응 양상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2015;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 속 여성들의 길 떠나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2017.
- 3) 이 작품은 17세기 후반에 창작되었으리라 추정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초기작이다. 특히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시초를 알리는 작품인데, 이 유형은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비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작되어 오랜 기간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소현성록>연작은 사대부가 여성 계층의 국문장편소설 독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면서, 남성과 여성 독자 모두에게 수신서, 교훈서로 인식되어 귀하게 보존되기까지 했던 소설이므로 연구의 대상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도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작품이다. 단일 인물론에 해당하는 것들만 들면 다음과 같다.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과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2005;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 - <소현성록>의 화부인」, 『동방학』 20, 2011;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 - <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2011;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2013.

자신의 할 말을 하기도 하는 아내로서의 면모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이같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여성은 장편 고전소설의 각 작품에 한 둘씩은 존재한다.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 <조씨삼대록>의 양정렬, <임씨삼대록>의 설성염 등인데, 특히 진양공주는 누구에게나 칭송 받는 완벽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 여성들의 삶과는 다르게 이상화된 측면이 있고 공주이기에 사대부가 여성과는 다른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 여성의 다양한 역할 즉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로서의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고 아내로서의 모습이나 궁궐에서 나라의 일을 하는 모습 등이 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현성록>의 석부인은 혼인 전부터 시작하여 아내, 며느리, 어머니, 시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작품 전체에 걸쳐 전 생애에 걸쳐 조명되기에 당대의 바람직한 여성상의 구체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소현성록> 내에도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여성이 몇 더 있지만, 소운성의 아내 형씨, 소운명의 아내 임씨와 이씨 등을 석부인과 비교하면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고 관련 서사가 적어 전체상을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면들이 석부인 형상의 의의이므로 이에 대해서 3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2. <소현성록>의 석부인의 특징

1) 지성과 미모, 효성

석부인이 처음 소개되는 부분을 보자. 그녀는 병부상서 석현의 딸이자, 대장군 석수신의 손녀이다. 즉 할아버지 석수신은 석장군이라고 불리는 데, 그는 개국공신이고 천자가 매우 후대하시기에 재산이 왕공(王公)들보다 많다. 아버지 석상서는 말이 없는 성품이고 고집이 세며 아내 진부인

과의 사이에 5자1녀를 두었다. 딸의 이름이 명혜이고 자는 숙란인데 그녀가 바로 석부인이다.⁴⁾

그 딸은 나이 13세에 용모는 서시(西施), 양귀비(楊貴妃)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고, 재주는 사씨, 소혜(蘇蕙)와 나란히 할 만하다. 여공(女功)과 부인의 후덕함을 갖추었으니, 석공 부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손바닥 위의 구슬 같이, 여린 옥같이 하였다.⁵⁾

이렇게 예쁘고 덕이 있는 딸을 귀하게 키웠는데 걸맞는 사위가 없어 5~6년을 고르다가 민망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그러던 중 진부인이 소현성과 화씨의 혼인 잔치에 갔다가 현성을 보고 딸의 짝이 될 만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던 중 석파도 현성을 석소저의 배필로 생각하여 그녀의 시(詩)를 현성에게 보인다.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성이 보고는, ‘필법이 나는 듯 구름이 일어나고 용사(用事)가 찬란하여 붓글씨의 빛이 춤추는 듯 나는 듯하여 공경을 표하고 읽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름다운 글이며 구절을 짓는 법이 맑고도 높고 뜻이 그윽하고도 우아하니 여자가 지은 것이며, 누이의 재주가 비록 기특하지만 이 글의 향기와 깨끗함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한다.⁶⁾

이렇게 석부인은 시(詩)를 잘 짓고 필법도 좋은 여성으로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여성의 글재주는 고전소설에서 자주 명시되지 않는 편이다. 남성 인물의 경우에는 문재(文才)나 인격 높음을 표출하기 위해 나오거나 분위기 조성, 상처 위로 등의 방편으로 나오지만, 여성

4) <소현성록> 1권 76~77쪽.

5) <소현성록> 1권 77쪽.

6) <소현성록> 1권 85~86쪽.

인물의 경우에는 일부 장편소설에서 가족들이 모여 시 짓기 놀이를 하는 정도를 발견할 수 있다.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 <소현성록> 등이 대표적이다. <소현성록>에서도 소운명의 아내 임씨, 소현성의 딸 수빙이 시를 잘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댁이나 외부인들에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한문소설인 <삼한습유>의 향량이나 <포의교집>의 양과 같은 여주 인물들은 시를 잘 지어 자기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칭찬을 받기도 한다.⁷⁾

석소저의 시에 대한 칭찬은 계속하여 이어진다. 현성의 누이인 월영이 보고는 “맑고 참신하며 구법(句法)과 문장이 부드럽고도 우이하여 이백, 두보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내 아우의 출중한 풍채와 고금(古今)을 훤히 알고 있는 재주로 재주 있는 이러한 숙녀를 만나지 못하니 어찌 아깝지 않습니까?”⁸⁾라고 하기에 이른다. 즉 어떤 여성에 대해 용모나 가문을 보기 전에 시로만 먼저 평가되고 그 평가가 최상이어서 혼인에 이르는 계기가 되는 것이 드문 경우인 것이다. 말년에도 소씨, 윤씨, 화씨, 석씨의 시를 품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에도 석부인의 글이 제일 특출하다고 평가되며 소송상도 마음속으로 칭찬하며 오래도록 보았다고 하는 장면이 있다.

석소저는 외모도 매우 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맑고 깨끗하고 빼어나게 예쁘며, 마음이 매우 어질고 사리에 밝은 것으로 칭찬 받는다. 모든 것에 초연한 현성도 혼인날 소저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 잠깐 봤을 때는 윤씨 누이와 비슷하더니 어찌 이렇게 빼어나게 아름다워졌는가?’라고 놀랄 정도이다. 다음은 폐백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7) 정선희, 『고전소설 속 예술 활동의 양상과 교육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53, 2018.

8) <소현성록> 2권 17쪽.

얼굴빛은 흰 연꽃과 같고 눈썹은 먼 산과 같으며 눈동자는 맑은 별과 같았다. 두 뺨은 복숭아꽃과 같고 붉은 입술은 앵두 같았다. 태도는 신중하고 행동은 민첩하며 키와 풍채가 거리낄 곳이 없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마음을 황홀하게 하며, 한 번 바라보면 얼굴빛을 고쳐 존경의 뜻을 표하게 할 정도였다. 윤씨와 소씨의 하늘이 내려주신 것 같은 특별한 용모도 이에 비하면 빛을 잃었고, 심지어 화씨는 성한 모란이 시든 두견화로 바뀐 것 같았다.⁹⁾

모인 사람들이 다투어 칭찬을 하면서 화부인의 오묘함, 소부인의 풍요로움, 윤부인의 깨끗함도 비슷한 이가 없는데, 신부는 이보다 배나 더하다면서 신랑의 복과 시어머니의 경사라고 한다. 소현성의 첫째 부인인 화씨도 신부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매우 놀라며 자기 신세가 박명함을 슬퍼하다가 설움과 애달픔으로 가슴이 막혀 정신을 잃을¹⁰⁾ 정도이다.

고전소설 특히 장편소설에서 선한 여성은 미모를 겸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칭탄 받는 여성들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나다고 지속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은 드물다.

· 부드럽고 환하고 깨끗한 기질과 그윽하고 어질고 밝은 풍채와 도량이 소씨, 윤씨 두 사람보다 열 배나 나왔다. 그러니 화씨에게야 더욱 비교할 수 있겠는가? (2권 55쪽)

· 눈처럼 흰 이마는 차가운 달 같고, 예쁜 눈썹은 버들 같았으며, 맑은 눈빛은 맑고 깨끗하여 새벽별의 정기를 띄었다. 또 두 뺨은 복숭아꽃을 아침 이슬로 꾸민 것 같고, 붉은 입술은 붉은 모래를 바른 듯하여 밖으로 고운 것을 자랑하였다. 초나라의 좋은 옥을 깎은 것 같은 흰 이는 안으로 비쳐 고움을 날리는 것

9) <소현성록> 2권 50쪽.

10) <소현성록> 2권 52쪽.

같았다. 운이 나는 귀머리리는 향기 좋은 기름을 허비하지 않아 흐르는 빛이 거울 같았다. 봉황의 날개 같은 두 팔과 가는 허리로 황금빛 연꽃 같은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니, 아름답고 단정하여 온 몸에서 빼어난 빛이 나오는 듯했다. 붉은 비단 치마를 끌며 금실로 수놓은 적삼을 나부끼면서, 칠보로 장식한 부채를 들고 난간으로 오르면, 몸에서 나는 향기가 연꽃의 향기를 물리치고 광채는 여기 저기로 쏟아져 좌우를 비쳤다. 그래서 구름과 무지개를 쓸고 태양을 마주하는 듯, 어둑해지는 밤에 밝은 구슬을 비친 듯, 수려하고 깨끗함이 비길 곳이 없었다.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눈이 부시는 듯하여 탄복하고, 화씨, 여씨 두 사람이 취한 듯 부끄러운 듯하였다.(2권 92쪽)

미모에 더하여 그녀는 행동과 처신도 남다른데, 아래의 예문들을 보면, 명철하고 겸손하고 고상하며 견고한 성품이다. 품격이 있으며 화평하고 도량이 넓으며, 공정하고 엄숙하고 마음이 굳으며 뜻이 원대한 여성이다.

· 석소저가 일을 주선하는 행동과 사람 사이의 처신함이 나이 든 부인이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또 양부인 섬기기를 그림자가 응하듯 하여 …(중략) … 일마다 뛰어나고 명철하며 겸손하고 공손하니 (2권 56쪽)

· 마음을 더 겸손하고 안정되게 하여, 아침 단장을 마친 후에는 취성전 들어가 날이 저물도록 식사 준비를 살피며 석파와 이파가 하는 바를 도왔다. 하지만 다른 집안일에 간섭하지는 않고 말단 시녀에게도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시비(是非)를 가리는 일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러니 그 맑고 고상함과 견고함을 알 만하다. (4권 120~121쪽)

· 오직 석씨만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바느질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비록 양부인이 때에 맞는 옷을 마름질해 주시지만 시녀에게 맡겨 완성하게 할 뿐, 스스로는 양부인 식사를 받들며 의복을 맡아 처리하여 신임을 받으며

모셨다. 마치 그림자가 얼굴을 좇는 듯하니 비록 나이가 늙어도 성품이 쇠하지 않아 한결 같았다. 그래서 양부인이 자연히 긴요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 화씨 보다 더하였다. 수십 년을 모시되 터럭 하나도 미진한 일을 보지 못하였으니 양부인이 앞에 두기를 마땅하게 여겼으며, 승상께도 허물을 보이지 않았으니 석부인의 현철함을 가히 알 만하였다. (4권 125~126쪽)

· 석파가 웃으며 말하였다. “... (전략) ... 우리 석부인은 버들 같은 눈썹과 눈 같은 보조개, 구름 같은 귀밑과 가을 물결 같은 두 눈, 앵두 입술에 흰 이는 백옥으로 만든 듯하고, 맑고 깨끗하며 무르녹아 꽃과 달과 옥이 미치지 못할 자색이십니다. 또한 성질이 유순하시며 말씀이 단정하고 엄숙하며 의논이 공정하여 사람들이 얼굴을 보아도 속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품격이 승상과 같은데 처신이 화평하니 그 도량의 깊음이 소부인보다 나으십니다. 또 모든 일을 다 거리끼지 않으며 간섭하지 않아 태연히 풀어 버리시니 이는 선비나 군자의 행동입니다.” (10권 72~73쪽)

· 석부인은 평소에 혼연스러운 기색을 띠며 답소가 유순하고 기질이 화평하였지만, 본래 엄숙한 기색이 있어 웅졸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 (중략) ... 석부인의 공정하고 엄숙함이 이러하였다. (10권 92~93쪽)

· 석부인의 심장이 쇠나 돌보다도 굳고 뜻이 원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 (11권 15쪽)

투기하지 않는 모습도 부각되는데, 남편이 적국인 여씨와 혼인할 때에도 혼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남편의 길복(吉服)을 짓는다.¹¹⁾ 하룻밤 사이에 지은 솜씨가 뛰어나 신묘하다고 할 정도여서 모두들 칭찬하고, 그 투기하지 않음에 어질다고 탄복한다. 그녀는 또 다른 부인들과 겨룬다고 할

11) <소현성록> 2권 81쪽.

까 두렵고 또 자기만 칭찬할까 괴로워서 아침 문안을 드릴 때에도 남들이 다 가면 그때에 가는 등 세심하게 신경 쓰기도 한다. 그러니 ‘매사에 겸손하고 공경하며 자연스러움이 이와 같았다(2권 89쪽)’거나 ‘행실이 상서의 뜻에 어긋남이 없으니 말할 필요가 없고 미진한 데도 없어 피차가 서로 말이 없었다(2권 90쪽)’라고 할 만하였다. 질투하던 화씨도 여씨가 온 후에는 ‘석소저의 현철함과 공손함을 깨달아 화목하게(2권 91쪽)’ 된다.

남편이 강주 자사로 오랫동안 파견 가게 될 때에도 슬퍼하지 않으면서 아녀자와 이별하는 것 같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병이 난 상태여서 걱정하는 승상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부질없는 염려에 얽매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대범한 성품을 느낄 수 있다.

석부인은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모습도 자주 언급되는데, 소소상이 출전하러 길게 집을 떠나게 될 때에도 슬픔을 참고 어머니 음식 봉양과 이부자리 보는 것을 맡아서 부지런히 하고 좋은 안색으로 받들어 모시고 곁에서 지키고 자니 시어머니가 그 효성스러움과 성스러운 덕에 감격하여 사랑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하였다고 되어 있다. 시어머니 태부인이 마음을 달래러 강정으로 떠날 때에도 ‘나의 앓고 늙는 것을 살펴 편하게 해주는 것은 어진 석부인’¹²⁾이라면서 딸 율영과 함께 데리고 갈 정도이다.

중년이 되어서도 석부인은 가족 중에서 효성이 가장 뛰어나기에 남편 소현성이 공경하고 후대한다고 되어 있다. 거기에도 아들까지 잘 키워 운성이 큰 공을 세우니 그 어머니로서 공경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듣고 황후가 석부인을 ‘정숙현덕부인(靜淑賢德婦人)’으로 봉한다. 아울러 노비를 수백 명 하사하고 칠보 쌍봉관 등 왕비의 예복을 하사한다. 황제는 그녀의 작위를 높여 화부인과 같게 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석부인의 복과 존귀함이 당대의 최고라고 칭탄한다.¹³⁾

12) <소현성록> 11권 17쪽.

2)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성품

석부인은 온화한 성품이지만 엄격하고 차갑게 태도를 표명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석파가 부인네들의 다과 자리에서 자신을 칭찬하자 이런 상황을 민망해 하면서 준엄하고 단정한 태도를 보이는데 사람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한다.

석소저가 두 눈썹을 움직이고 얼굴빛을 엄숙하고 냉담하게 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억지로 잔을 받아 앵두 같은 입술에 댔다가 곧바로 무른 후 시녀에게 주었다. 원래 소저는 석파가 말 많고 사람 희롱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말하기가 좋지 않아 다만 옷깃을 바르게 하고 단정하게 앉아 있으니 그 준엄하고 단정함이 어찌 화씨가 여러 말로 꾸짖는 매서움에 비기겠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니, 석파의 강하고 씩씩하며 능란함으로도 부끄러운 얼굴이 되어 물러났다. 진실로 소부인·윤부인도 두려울 정도였다.¹⁴⁾

다른 사람이 예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에 보이는 준엄함이다. 또한 보통 사람 같으면 걱정하고 조급해 할 상황에서도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소현성이 여씨와 혼인한 날 화부인은 근심에 잠겨 원망하는 빛이 가득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에 비해, 석부인은 태연하게 단잠을 잔다. 이를 보고 석파는 그녀가 진실로 뜻이 견고한 여자라고 감탄한다.

석부인은 자녀를 교육하는 면에서도 엄격하다. 아들 운성이 소영을 겁탈했고 형씨를 엇본 일이 소승상에게 알려져 승상이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며 더러운 물을 벌로 마시려 하자 자신이 어질지 못한 탓이라며 자신이 물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운성을 꾸짖는다.

13) <소현성록> 12권 38~41쪽.

14) <소현성록> 2권 71~72쪽.

“못된 너를 낳았으니 죽어도 좋다. 네가 부모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천하의 죄인이 될 것이다. 살아서 쓸데없으니 빨리 죽어라. 네가 소영은 무슨 일로 겁탈했으며, 형씨는 어디 가서 엿보았느냐? 너는 내일부터 형씨와 소영을 데리고 살고, 우리는 보지 못할 것이다.”

말을 마치고 물그릇을 들었다. …(중략)… 석부인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를 하지 못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느냐? 내가 비록 별로 주는 물을 먹지 않지만 너 같은 자식을 낳아 소씨 조상께 죄인이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겠느냐?”¹⁵⁾

아들을 매섭게 꾸짖으면서 그를 이렇게 만든 자신이 어머니로서 부끄럽다고 하여 아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운성은 자신의 잘못을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자신에게 앵혈을 찍어 소영을 겁탈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석파를 원망하면서 할머니와 아버지께 벌 받을 것을 더 걱정한다. 물론 부모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벌수를 마시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창피하여 땅으로 숨어들어가고 싶다고 하기는 하며 다음 날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사죄하게 된다.

운성이 명현공주와 혼인한 뒤 공주와 공주의 가문을 비난하면서 그녀를 멀리하겠다고 하자, 나라의 녹봉을 먹으면서 임금을 헐뜯으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라고 책망한다.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고,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살피며,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삼가 조상과 부형(父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단속한다.¹⁶⁾ 공주가 예의 없고 교만한 행동을 하자 그녀를 보필하는 한상궁을 불러 엄하게 말하여 공주가 행실을 고치도록 하기도 한다. 이런 석부인을 보고 상궁은 그녀가 재주와 용모가 뛰어나고 위엄 있는 태도에 성스러운 여인의 틀이 있다면서 ‘여자 가운데 영웅’이라

15) <소현성록> 5권 83~84쪽.

16) <소현성록> 6권 36~37쪽.

고 평가한다.

운성이 공주와의 불화로 화병이 나고 미칠 것 같다고 눈물로 호소할 때에도 ‘비록 속으로는 오장이 끊어지는 듯했지만 억지로 참으면서 엄하게 꾸짖어’ 말한다.

“너는 잠시 앉아서 들어라. 네가 처음에 소영을 겁탈한 것은 공주가 방울을 던져 남편 구함과 같고, 너는 남자의 몸으로 상사병에 걸렸고 공주는 여자의 도리를 잃고 지난번에 너에게 죽으라고 꾸짖었으니 체모를 잃은 것이 같다. 또 네가 형씨를 다시 만난 후에는 이미 한을 푼 것이니 공주를 후대해야 옳은데 갈수록 매몰차고, 공주는 형씨를 보고 자기가 그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깨달았는데도 너는 오히려 네 잘못을 모르고 못마땅하게 여기니 그 통달하지 못함이 공주와 같다. 그런데 요새는 공주가 형씨를 보고 혼연스럽게 후대한다고 하니 도리어 너보다 낫구나.”¹⁷⁾

운성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공주를 비난하면서 병이 드니 너도 잘 한 게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쓴 소리를 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것인데, 운성은 고집이 세서 계속하여 말을 듣지 않다가 소승상에게 50대가 넘는 매를 맞게 된다. 급기야 형씨가 운성의 편애에 괴로워하며 자결하려 하기까지 하고 운성은 장독(杖毒)이 생겨 앓아눕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석부인과 소부인은 형씨를 위로하면서도 자결은 생각지 말고 일단 운성의 말을 들어주라고 한다. 결국엔 형씨가 운성과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 즉 석부인은 아들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주기는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고 며느리를 위로하면서 둘이 잘 지낼 수 있게,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다.

17) <소현성록> 7권 36쪽.

석부인은 며느리에게도 따뜻한 시어머니인데, 형씨가 공주의 명령으로 공주의 처소에서 함께 지내게 되자, 위태롭게 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액운과 운수를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안심하고 지내다가 때를 타서 잘 처신하고 지내라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을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편치 않아 이렇게나마 말한 다면서 운성을 원망한다.¹⁸⁾

석부인은 ‘평소에 여러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을 지성으로 하여 친딸과 다름이 없게 했기에’ 운숙의 아내 성소저가 자질이 부족하다고 식구들이 한탄해도 그녀를 후덕하게 대한다. 석과가 성씨의 부족한 점을 말하는데도 다만 웃을 뿐 뭐라고 말을 하지 않기에, 석과가 이런 태도를 의아하게 여겨 소승상에게 말함으로써 며느리 대하기에 대한 부부간의 토론이 벌어진다. 석부인이 자신은 며느리를 사랑하기를 딸들과 같이 한다고 하자, 승상은 만약 그렇다면 며느리가 식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데도 왜 말하여 가르쳐서 비웃음을 면하게 하지 않느냐, 이건 친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자 부인은 며느리를 똑같이 사랑하기는 하지만 가르치고 허물을 말할 때에는 감정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다르게 대하여야 한다고 한다.

“상공의 말씀이 옳으시나 다만 생각하건대 며느리가 비록 사랑스럽고 귀중한 것이 딸아이와 다르지 않으나 또한 일의 형세가 다릅니다. 친딸은 이미 내 자식이라 때리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며느리는 다만 사랑을 할지언정 다른 집 사람이기에 저도 이미 나를 제 어미와 같이 여기지 못하여 공경하는 것이 지극합니다. 내가 또한 자주 가르치고 허물을 말하였는데도 며느리가 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을 상하여 문득 속으로는 어려워하고 겉으로는 유순함이

18) <소현성록> 7권 90쪽.

많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리하여 다만 입을 봉하여 말을 허비하지 않으면 집안 사람들의 의논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니 어찌 쓸데없이 서두르겠습니까?”¹⁹⁾

석부인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승상이 그래도 시어머니가 진심을 담아 충고하면 그 말을 듣고 바르게 행동하여 비웃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자 그러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된다.

석부인의 딸 사랑도 각별한데, 수빙이 격에 맞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갈 때에 안쓰러워하며 걱정하면서 자나 깨나 딸을 잊지 못한다. 시가(媿家)가 가난하고 무례한 집안이라 딸의 앞날을 걱정하며, 사위 될 김현이 딸의 초상화를 보고 상사병이 났었다는 것을 불만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딸에게는 남편 섬기기를 유순하고 씩씩하게 하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모름지기 군자를 섬김에 있어 유순하고 씩씩하게 하며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동열(同列)을 공경하며 교만한 뜻을 두지 말라. 또한 마음을 굳게 하며 늘 경계하여 주야로 궁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일 우리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서 욕이 부모에게까지 미치면 자식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자식이 어질어서 빛난 이름이 부모에게 들리면 이것이 곧 효도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어가는 어머니를 위해 다리 살을 베어 먹여 살릴 정도로 공경을 하여도 불효라고 하였으니 너는 삼가 조심하고 맑은 덕을 두루 행하여 집안의 명성을 더럽히지 말거라. 그리고 시집이 불편해도 원망하거나 호화한 내 집을 생각하지 말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전하지 마라.”²⁰⁾

이 말을 듣고 딸이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하직 인사를 하는데도 슬픔

19) <소현성록> 9권 83쪽.

20) <소현성록> 12권 123쪽.

을 참으면서 안쓰러운 빛은 보이지 않고 여러 번 위로하면서 시녀를 넷만 팔려 보낸다. 그러자 시누이인 소부인과 윤부인이 예전에는 딸들 시집보낼 때에 시녀를 열 명씩 보내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적게 보내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답한다.

“옛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부귀가 아주 심하여 더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천지의 신령이 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딸아이가 재상이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매우 지체가 높고 귀하니 조물주가 꺼려서 유생(儒生)의 두 번째 부인이 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재앙(災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만일 하늘의 뜻을 거슬러 여종을 많이 주어 그 복이 적어진다면 어찌 딸아이의 팔자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조강지처가 있으니 자신의 형편이 딸아이보다 나으면 십분이나마 덜하겠지만 만일 딸아이가 사치하고 기세가 더 낮다면 사람의 화를 돋워 피차간에 서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과 검소한 집 그리고 적국(敵國)이 있는 집은 사치와 형세(形勢)와 부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 네 명의 시녀도 저 아이에게는 족합니다.”²¹⁾

시가에서 질투를 받아 더 괴로워질까 두려워 시녀를 적게 보내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시누이들은 탄복하면서 석부인의 어진 덕과 밝은 뜻이 군자와 같고 성자(聖者)라고 할 만하다고 한다. 따뜻함과 엄격함, 냉철함을 함께 지닌 여성인 것이다.

3) 순응하지만 논리적인 발언

석부인은 온화하고 공손하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한다. 남편 소현성이 오해하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가 급기야는

21) <소현성록> 12권 124~125쪽.

독주(毒酒)를 먹고 죽어야 죄를 씻는 것일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때에는 차갑게 웃으며 다음과 같이 답한다.

“제가 사납다고 하는 것은 다른 행동으로 말한다면 달게 받겠지만 무고의 일과 독을 넣은 일, 그리고 지난밤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은 성인의 가르침을 보았는데, 군자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데는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어머니께서 친절으로 돌려보내시면 집에 가 부모를 보고 편히 있을 따름입니다. 무슨 이유로 부모께서 주신 몸을 버리고 청춘에 더러운 누명을 씻지 못하여 스스로 죽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부끄럽겠지만 제가 비록 불초해도 죄 없기가 대낮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책하시지만, 너무 부끄러워 친정에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의 죄는 없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상서가 나가기를 재촉하시는데, 여자가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친절으로 돌아가지만 죽으라고 하시는 말은 알이듣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젯밤 일을 다시 일컬어 책하시지만,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두렵지 않습니다.”²²⁾

이 말을 듣고 현성이 더 화가 나고 놀라서 석씨의 혼서지와 채단을 불태우기 위해 내어오라고 한다. 그런데도 석부인은 이것들을 흔쾌히 내어주면서, 옆에서 걱정하는 석파에게 승상과 인연이 있다면 다시 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당당함을 보인다.

친정으로 쫓겨나 둘째 아들을 낳고 그곳에서 몇 달간 사는데도 소승상은, 여씨의 계략대로, 석부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매우 매몰차게 대한다. 그러던 중 소승상이 병이 나 조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갈을 받자 석부인은 친정아버지를 설득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억울할 법하지만 석부인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22) <소현성록> 3권 24~25쪽.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재앙이라고 하면서 사죄한다.²³⁾ 양부인이 소송상과 석부인 모두 잘못하지 않았으니 화해하라고 하여 부부는 다시 화목하게 된다. 독자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소송상이 그른 판단을 한 것이고 석부인이 심하게 내쳐진 것이지만 작품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만다. 이렇게 석부인은 여자의 도리를 다하는 면에서, 운명이라고 순응하는 면에서 보통의 여성 인물들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정의 위세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며, 부인 자신도 남들과 다르게 태연하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것이 다른 면이다. 석씨 가문은 개국 공훈을 세운데다 할아버지 석공이 기가 센 장군이고 아버지 석참정도 고집이 세서 만만하지 않다. 이때에도 석부인을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고 버티는 장면이 있다.²⁴⁾

그러나 한참 지난 뒤에 석부인은 승상(참정)에게 이 사건을 비꼬는 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대화를 잠시 한다. 사건을 겪는 중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순응하는 듯했지만 진정으로 승복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참정이 자신의 처소로 와 아이를 데리고 놀다가, 아이에게 언제 자라 숙녀를 얻어 혼일할까 묻는 것을 보고, ‘참정에게 창피를 주려고’, ‘어떤 숙녀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혼서(婚書)를 불 지르고 없는 일을 했다고 하며 구박하여 내쫓기는 화를 보기 쉬울까 두렵구나.’²⁵⁾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참정이 자신은 여의개용단(如意改容丹)을 먹고 얼굴이 바뀌어 요사스런 행동을 한 여씨에 속은 것이고 이런 사건은 다 부인의 액이 크기 때문인데 왜 자신을 원망하느냐는 말을 듣고는 바로 수궁하여 자신이 그름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만다. 하지만 이때의 표정은 ‘별 같은 눈이 가늘어지며 얼

23) <소현성록> 3권 65~66쪽.

24) <소현성록> 3권 61쪽.

25) <소현성록> 4권 15쪽.

굴빛이 표면하고 엄숙한 것이 눈 위에 서리가 내린 것 같았'기에 참정이 듣고 나서 그 말하는 것에 조롱이 들어 있고 노기가 미미하게 흐르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보고만 있을 따름이었다고 되어 있다. 같은 상황이라면 부인은 속지 않을 수 있겠는지 되묻는 말에 석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어찌 상공의 맑고 밝은 처치를 조롱하며, 여씨께 속은 것이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이 일은 그 전후(前後)의 저의 불민함 때문에 현명하게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것이니 제가 마땅히 달게 받습니다. 다만 군자가 아녀자를 셋이나 거느리시어 집안이 소란하니 이를 다스려야 하는 재주가 크고 위엄이 중함을 족히 알겠습니다. 자고로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겨를이 없는 중에 궁첩의 참언(讒言)으로 황후를 폐출하는 것이 반드시 그른 것은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상공이 이들의 배필을 맡씀 하셨는데, 만약 아들이 어질지 못하다면 이 아이가 비록 자라더라도 상공의 후덕함을 받들어 잊지 못하고 불초하여 여자에게 화를 끼칠까 두려워서 한 번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은근한 욕과 죄를 지었다는 책망을 받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고자 하여도 죽을 곳이 없습니다.”

참정이 그녀가 깊게 노함을 보고 사리로 심하게 책망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람됨이 겁냄이 없어서,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릇되었다 하는 것도 또한 장부의 위의를 잃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지 얼굴빛을 차갑게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석부인이 단지 온유하고 단엄한 것이 몸에 완전 하였으니, 겉으로는 태연하고 내심은 가을날의 서리 같아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다.²⁶⁾

남편의 처사가 그럴 만하다고 수긍하면서도 그런 처사가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사안임을 말하고, 남자의 처신은 매우 중

26) <소현성록> 4권 16~18쪽.

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녀의 엄숙한 말에, 참정이 그녀를 평가하기를 ‘사람됨이 겁냄이 없다’고 한 점, 서술자가 말하기를 ‘은유하고 단엄함이 완전하여 겉으로는 태연하고 마음속은 가을날의 서리 같아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그녀의 성품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석부인은 자녀 교육에 엄격하기는 하지만, 자녀가 곤경에 빠지거나 너무 힘들어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 한다. 비록 남편 소송상이 교육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게 발끈하여 따지기도 하는 것이다. 아들 운성이 친정으로 피신한 아내 형씨를 그리워하여 병이 나 죽으려 하자 그가 여색에 마음을 빼겨 이라는 것이라며 용서하지 않고 형씨를 데려 오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석부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식음을 전폐한다. 며칠 동안 병이 나 오열하며 누워 있자 승상이 간호하러 오는데 이때에 그를 원망하며 대답도 하지 않고 탄식하기만 한다. 그러다가 승상이 자신도 운성을 아끼지만 공주 때문에 큰 재앙이 닥칠까 두려워 형씨를 데려오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하자, 안색을 바로하고는 아들의 목숨이 소중하니 너무 멀리 예측하지 말고 아이의 병이 낮게 해달라고 답한다. 그렇게 해도 승상이 수긍하지 않고 여자의 약한 태도로 아들을 둔우지 말라고 하자, ‘발끈하여 얼굴빛이 바뀌어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승상이 비록 명문가의 이름난 재상으로 모든 일을 정대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찌 부자지간의 친한 정을 모르고 하늘의 운수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우리 모자를 박멸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형씨를 데려와 아이의 병을 위로한 후에 돌려보내면 될 것인데, 자식 죽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혼연스러운 것은 인정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까만, 아이가 승상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병이 들었어도 조리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²⁷⁾

이 말을 듣고 승상은 석부인이 평소에 유순하고 공손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자식을 사랑하여 이러는가 보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자버린다. 석부인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니 승상의 누나인 소부인이 승상을 꾸짖으면서 고집을 그만 거두라 하여 마침내 형씨를 데려오게 된다. 비록 석부인의 뜻이 곧바로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강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도 하고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한다는 면에서 순응하기만 하는 여성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석부인은 명현공주가 비록 며느리이지만 공주이기에 평소에는 그녀의 잘못을 드러내기 보다는 아들 운성을 다독이면서 둘이 화목하라고 권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태부인께 무례하게 행동하자, 그녀의 보모에게 앞으로는 공주가 문안드리러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기색이 눈 위의 얼음 같아 공주와 궁녀들이 모두 부끄러워할 정도로 냉담함이 비길 데가 없다²⁸⁾고 서술된다. 곁에 있던 소부인도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이다.

“석부인의 나직한 목소리가 문득 다른 사람의 높은 목소리보다 더 무섭네. 공주가 아무리 권세를 믿고 우리를 멸시하지만 시어머니의 냉담한 빛을 보고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구려. 석부인은 이른 바 한고조의 장량(張良) 같은 이일세. 공주의 도량이 한고조 같지는 못하나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매우 비슷하고, 석부인의 조용한 기상이 장량과 같은 까닭에 공주이지만 굴복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²⁹⁾

27) <소현성록> 6권 116~117쪽.

28) <소현성록> 8권 53쪽.

29) <소현성록> 8권 53~54쪽.

그렇다고 하여 공주를 무작정 비난하지는 않고, 아들이 잘못할 때에는 공정하게 판단하여 꾸짖는다. 운성이 공주를 계속하여 매몰차게 대하면서 형씨만 생각하자, 네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여자의 원한이 일어나 잘못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공주를 너그럽게 대하고 임금의 은혜를 생각 하라고 한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공주에게 간 운성이 또 그녀와 다투고 나오자, 아녀자의 죄를 따지지 말고 세 번 들어가 보라고 한다. 운성이 또 문병하지만, 화병이 심하게 든 공주는 계속하여 분노를 표출하다가 곧 죽 게 되기는 한다.

3. 요구되는, 욕망하는 여성상으로서의 석부인의 의의

1) 가족 관계 속 여성 덕목의 구체적 형상

- 다른 선한 여성인물들과의 차이

<소현성록>의 석부인은 당대 여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가족 관계 속에서 전 생애에 걸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서 의의가 있다. 아내, 며느리, 어머니, 시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작품 전체에 걸쳐 조명되는 등 여성 교육의 측면이 있기에 <소현 성록>은 상층 가문에서 교훈서로 읽히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수신서(修身書)의 역할도 할 수 있었던 듯하다. 이는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국문장 편 고전소설의 후대본들 즉 <조씨삼대록>이나 <임씨삼대록> 등에서는 악녀의 악행을 읽는 재미가 부각되는 것과 대조되는 면이다.

또한 <소현성록> 내에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여성이 몇몇 더 있는데, 소운성의 아내 형씨, 소운명의 아내 임씨와 이씨, 소현성의 딸 소수주 등이다. 이들은 각각 여성으로서의 어떤 한두 덕목을 구현하는 인물이기

에 선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석부인의 덕목에 비하면 부족한 면들이 있다. 다른 작품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도 바람직한 여성상이기는 하지만 그녀는 공주이며 이상화된 인물이기³⁰⁾ 현실 속 구체적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족 관계 속에서의 석부인의 형상을 정리해 보자. 아내로서의 모습을 먼저 보면, 투기하지 않고 첫째 부인 공경하며 셋째 부인을 온화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편의 길복(吉服)을 지으면서도 혼연스러워서 모두 칭찬하는데, 이는 여자로서의 당연한 덕목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시누이인 소씨의 말을 통해서이다.

“무릇 여자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굽혀야 하니, 유순한 것이 큰 덕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사람이 지아비에게 혼자 충애를 입으면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려는 것은, 탐내는 마음과 욕심이 무궁하여 그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하늘의 명령이니, 사람의 화와 복도 다 저 푸른 하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후(呂后)가 크나큰 폐약으로 척희(戚姬)를 인체(人屍)로 만들었지만, 후세에서 칭 뵈고 꾸짖을 따름이요, 태사(太妃)는 거룩한 덕으로 삼천 명 후궁을 형제 같이 대하고 일백 명 자식을 자기가 나온 아이들처럼 대했지만, 특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로써 제가 헤아려 보니, 지아비가 여러 여자를 취하도록 첫째 부인 자리에 거하여서도 마음을 평안히 하고 자기 행실만 맑게 닦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길복을 안 짓는다고 하여 그 혼인이 안 되겠으며, 기색을 불평하게 한다고 해서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세 속의 여자들이 헤아림을 모르고 한갓 투기와 나쁜 말로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범하고 시부모님께 불순하며 지아비와 겨워 화목한 기운을 잃으니 참으로 그

30)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2018.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투기를 한다는 것은 지아비를 빼앗기고 다른 부인을 미워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여 좋지 않은 말과 독한 언어로 지아비와 힐난하여 은혜와 정이 어그러져 미워하면 다른 부인에게 충애를 돌려보내며 자신의 몸에는 투기하는 부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여자의 유순한 덕을 저버려 마음을 상하고 단명(短命)할 징조를 만든다면 어찌 가소롭지 않았습니까? 설사 지아비가 자기를 애중하여 다른 아내들을 다 버리고 자기에게만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고 해도 반드시 그 마음에는 치우친다고 여길 것이니, 이렇다면 비록 화려하지만 어찌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모르고 다만 말하되, 다른 부인이 없고 지아비의 뜻이 단정하여 은혜로운 뜻이 내게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백만 가지 염치를 다 잊고 마치 충애만 구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더럽지 않았습니까?

다만 지아비가 청루(靑樓)에 다녀 방탕하고 쾌락하여 위엄을 잃으면 사리에 맞게 직간(直諫)할 것이요, 만약 집으로 창녀를 모으거든 그녀에게 옷과 음식을 후하게 쥐 평안히 머무르게 하지만 업신여기거나 무례하게 행하지는 못하게 하여 창녀 무리들이 감히 내 방에 들어오지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그녀가 자식을 낳으면 지아비의 골육을 지녔으니 천대하지 않고 난간에라도 앉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석씨의 태연함은 이것이 곧 늘 있는 보통의 일입니다. 그녀가 불평을 해도 여씨가 들어올 것이니, 만약 평안해하면 남들이 또한 예사롭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불안해하면 경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와 어찌 그런 행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저는 다만 그녀를 염치 있는 사람으로 알 뿐이지 각별히 탄복하지는 않습니다.”³¹⁾

아내로서 남편이나 다른 부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남편이 창녀를 데려오면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말하는데, 핵심은 그 어떤 경우에도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투기하지 않는 석부인의 행실은

31) <소현성록> 2권 84~86쪽.

당연한 것이지 특별히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대화를 통해 여성이 가져야 할 덕목을 강조하고 있으며 석부인이 이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소설은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석부인은 또 딸 수빙이 김현의 둘째 부인으로 시집가는 것을 안쓰러워하고 슬퍼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딸이 둘째 부인이 된 것이 편치 않아서였다. 자신의 처지와 같아질 수 있어서 더욱 근심을 한 것이라 서술되어 있다.³²⁾ 첫째 부인인 화부인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늘 자신을 낮추고 화부인에게 상을 미뤄주었기에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그 위치가 편하지만은 않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 마음에는 갈등이나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작가가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둘째 부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그녀의 딸 수빙이나 수주도 마찬가지로, 특히 수주는 인종황제가 총애하는 후궁 즉 귀비임에도 불구하고 황후 곽씨에게 순종하고 황제를 그녀에게 보내는 등 무한히 참고 양보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곽씨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태후 궁으로 거처를 옮겨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 더 깊은 북궁(北宮)에서 홀로 살면서 화를 피한다. 한가롭게 지내는 것을 좋아 해서 문장과 행실을 닦으며 지내지만,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린다.³³⁾ 곽후가 폐약을 부려 폐비가 된 뒤에 황제 곁으로 돌아가 함께하지만 태후궁에서 5년, 북궁에서 5년을 견딘 것을 보면서, 정궁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면서, 정궁이 된 뒤에는 후궁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후하게 대하여 감동시키는 것을 보면서, 여성 독자들은 그녀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듯하다.

32) <소현성록> 12권 131쪽.

33) <소현성록> 14권 35~39쪽.

운성의 아내 형씨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 그녀는 정실이지만 명헌공주가 위상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의 지위라고도 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운성이 자신을 찾지 않고 공주를 후대하기를 여러 차례 권하면서 애정을 다투기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성이 그녀만 찾고 공주를 박대함으로써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으며 고난을 당한 여성이다. 그녀는 단정하고 침착하나 너무 깨끗하고 맑으며 지나간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석부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운성이 소영을 첩으로 두게 되는 과정에서는 당당하게 의견을 표하기도 하고³⁴⁾, 공주에게 아량을 베풀어 공주의 보모까지도 감동하게 하기도 하고³⁵⁾, 운성이 공주로 인해 궁궐에 갇혔을 때에 등문고를 울리고 황제에게 표문(表文)을 올려 그를 구하기도 한다.³⁶⁾ 그러나 운성과 대립하기도 하고, 사치한다고 꾸짖는 운성에게 당신이 예전에 더 사치하지 않았느냐면서 따지기도 한다.³⁷⁾ 그 기상이 강렬하고 말이 냉담하며, 화가 난 남편이 소영에게 가도 여전히 냉정하고 엄하다.

운명의 아내 임씨도 바람직한 여성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여자 중에서 군자’³⁸⁾라고 할 정도로 덕이 있고 신중하며 위엄이 있으며, 규방의 화목한 기운은 모두 임씨의 훌륭한 덕 덕분³⁹⁾이라고 되어 있다. 그녀의 문재(文才)에 운명이 감탄하고 승복했다고 할 정도인 점 등이 석부인과 비슷한 면이지만, 그녀도 소수주나 형씨처럼 아내로서의 모습만 부각된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앞 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석부인은 어머니로서,

34) <소현성록> 5권 107~110쪽.

35) <소현성록> 7권 102쪽.

36) <소현성록> 7권 73~77쪽.

37) <소현성록> 9권 43쪽.

38) <소현성록> 9권 100쪽.

39) <소현성록> 12권 53~54쪽.

시아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모습이 두루 형상화되어 있었다. 다만, 형씨는 표문을 통해서, 임씨는 시아버지와의 대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면을 지닌 점이 석부인과 닮아 있다.

2) 당당하고 정확한 처신과 자기표현

—상층 여성들의 자존감과 욕망 표출

석부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일상에서도 당당하고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만, 왕실에도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말하는 여성이다. 운성과 형씨가 궁궐에 갇혀 있다가 형씨의 표문⁴⁰⁾으로 운성을 구하고 형씨도 풀려날 때에 황후가 조서(詔書)를 보내 앞으로는 공주를 잘 대하고 형씨의 방자함을 막으며 운성을 경계하라고 하자, 표문(表文)을 써서 답한다.

“..... (전략)..... 어린 아들 소운성이 폐하의 사랑하심을 입어 초방(椒房)의 귀한 공주님이 미천한 가문에 이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수놓은 비단에 꽃을 더한 것 같이 되었으니 온 가족이 기뻐하고 가문의 영광이 상서롭다고 여겼습니다. 단지 처음부터 성상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역한 일은 진실로 공주를 싫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형씨를 황실의 공주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녀도 운성과 혼인한 부부이니 만약 부귀와 권세를 달게 여겨 이유 없이 버린다면 절개 있는 부인을 박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상의 뜻에 순종치 못했던 것인데, 상의 뜻이 절실하시어 형씨를 내치라고 하시기에 비록 송홍(宋弘)에게 죄인이 되는 일이기도 하나 명령을 거스르는 불충(不忠)을 얻지 않으려고 쾌히 형씨를 돌려보냈습니다.

40) <소현성록> 7권 73~77쪽. 남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베어 그 피로 쓴 것인데, 이를 보고 황제께서 스스로 잘못했음을 깨달아 운성을 용서하셨다고 되어 있다. 운성의 죄라고 지목된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변호하는 내용이 논리적이고 흥미롭지만, 지면 관계상 인용은 생략한다.

공주를 맞아 신 등이 공경하고 후대한 것은 궁인들과 공주님이 아실 바인데, 심지어 신이 공주의 흠을 적발하여 쫓아낸다고 하시는 전교를 들으니 놀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사리에 어둡고 저의 지아비가 어질지 못하지만 일찍이 예의를 지키고 경서에 군색하게 됨을 꾀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주께서 방울을 던지신 것은 전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명(天命)이고 천수(天數)이니 어찌 감히 놀리겠으며 아들의 마음을 돋우겠습니까? 황후께서는 허탄한 궁인의 간사한 참언을 끝이듣지 마시고 저희를 의심하지 않으신다면 밝고 거룩한 덕이 될 것입니다.

운성은 황상께서도 그 고집하는 것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 아이가 굳이 공주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조강지처를 저버리지 않고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밤낮으로 책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오히려 죽을 밖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삼가 내리신 조서를 받들어 다시 경계하겠지만 방자한 행실이 반드시 또 있을 것이니, 그 때에는 황후께서 아직 모르고 계실 때에 제가 분명히 그 아이의 죄를 일일이 아뢰겠습니다. 그러면 황후께서 그 때에 엄하게 처리하시어 후세의 사람들을 징계하십시오. 제가 감히 아이를 아끼는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천지에 큰 해가 비치시니 자질구레한 일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붓과 벼루를 앞에 두니 제 마음을 모두 말씀드리는 것이 죄를 더하는 듯합니다. 앞드려 바라오니 황후께서는 받아주십시오.”⁴¹⁾

예의를 갖추면서도 소씨 가문의 입장, 승상의 처신, 운성의 상황 등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다. 운성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완곡하게 드러나지만 곧바로 자신이 앞으로는 잘 경계하겠다고 덧붙임으로써 화가 나 있는 황후를 안심시키고 있다. 이 글을 읽은 황후는 노여움이 잠시 풀려서 석부인의 필법과 물 흐르는 듯한 말씀과 문장을 칭찬한다.

남편에게도 할 말을 당당히 하고 아들이나 며느리를 엄격하게 교육하면서 공주 며느리에게도 냉엄한 기상으로 가르친 석부인은 모든 가족들

41) <소현성록> 7권 86~88쪽.

의 존경, 시어머니의 사랑, 황제나 황후의 인정을 받는다. 아들 운성이 진 왕으로, 형씨가 왕비로 책봉되니 사람들은 석부인의 복록을 칭탄하며, 태부인의 오른팔이어서 화부인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⁴²⁾ 태부인이 임종할 때에 가권(家權)을 딸 월영에게 물려주는 하지만, 화부인은 성품이 거칠고 좁아서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물려주지 않는다고 한 것에 비해, 석부인은 다만 차례가 아니라서 물려주지 않는다고⁴³⁾ 한 것은 차이가 있다. 석부인은 품성이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특별한 효의(孝義)와 꽃다운 행실’⁴⁴⁾을 보인 여성으로 끝까지 칭송되면서 작품의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임과 동시에, 지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할 줄 아는 인물인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면은 당대 상층 여성들이 욕망하던 여성상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4. 나오며

이상에서 <소현성록>연작의 대표적인 여성 인물인 석부인의 특성과 그 의의에 대해 논하였다. 그녀는 당대인들이 요구하고 여성들이 욕망하던 여성상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장편소설에서의 바람직한 여성상, 이 작품 내에서의 다른 선한 여성상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었다.

그녀는 시(詩)를 잘 짓는 등 재주가 있고, 미모도 다른 이의 몇 배나 더

42) <소현성록> 15권 16~17쪽.

43) <소현성록> 15권 54쪽.

44) <소현성록> 15권 56쪽.

하다고 평가되며, 준엄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을 보여준다. 효성이 지극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가족 윤리에 순응하지만, 당당하게 할 말을 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거나 변호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아내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두 번째 부인으로서의 면모를 다각도로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소현성록>이 상층 가문의 유산으로 전해지거나 자손들에게 수신서로 읽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면이다.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 계열의 후대본들인 <조씨삼대록>, <임씨삼대록> 등에서는 악녀의 악행을 읽는 통속적인 재미가 두드러진 반면, 초기본들인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등에서는 선한 여성의 바람직한 면들을 보고 배우는 면과 여성의 삶에 대한 다각도의 조명을 읽는 재미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소현성록>의 석부인은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처럼 공주라는 특별한 신분이지도 않고 이상화되어 있지도 않기에 당대의 독자들이 좀 더 실감 나게 자신의 현실에 비추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도식화된 선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당당하게 말하고, 위엄 있으면서도 따뜻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부인들과 남편의 사랑을 다투면서 얽매이거나 노심초사하지 않는 초연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면 때문에 그녀는 당대 사회에서 요구하던 여성상임과 동시에 여성 자신들이 욕망하던 여성상이기도 한,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사, 2010, 각 권 1~400쪽 내외.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50쪽.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37쪽.
-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과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69~100쪽.
-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5~29쪽.
-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학회, 2009, 131~165쪽.
-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453~487쪽.
- _____,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 -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173~212쪽.
- _____, 「17세기 소설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인물 포폄(褒貶)양상과 고부상(姑婦像)」, 『문학치료연구』 3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9~39쪽.
- _____,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 속 여성들의 길 떠나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103~132쪽.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293~328쪽.
-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167~200쪽.
- _____,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孝悌)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41~175쪽.
-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1~185쪽.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171~196쪽.
- _____,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8, 169~202쪽.

ABSTRACT

‘Madame Seok’ of <Sohyunsungrok>, Who Was a Required and
Desired Woman Character

Jeung, Sun-he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nd the meaning of ‘Madame Seok’ who is a representative female character of <Sohyunsungrok>. She shows a desirable image of woman, which is similar but different from images of other women in <Sohyunsungrok> and desirable images of women in other full-length novels.

She has talents such as writing poems well, is evaluated as many times prettier than others, and gives teaching sternly but warmly. She is very filial to her parents and conforms to patriarchal ideology and traditional family ethics, but she states her opinion confidently at the same time. She is also thought to be the one who concretely shows how a woman should behave herself in family relationships of the time, by showing diverse sides as a wife, mother, mother-in-law, daughter-in-law and the second wife.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figuration of ‘Madame Seok’ is that she is not a stereotyped and submissive woman, but she confidently voices her thoughts, shows aspects of a dignified and warm adult, and remains aloof from rivalry with other wives for her husband’s love.

Key Words <Sohyunsungrok>, full-length novels, Korean classical novel, a desirable image of woman, a representative female character, family relationships

논문투고일 : 2019.10.07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